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호 [루게 제25163호] 주제105(2016)년 1월 20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청년운동사적관을 현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역사에 자라난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이 부강조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영웅적 청년신화를 창조해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70돐에 즈음하여 청년운동사적관이 훌륭히 건설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청년운동사적관을 현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최룡해동지, 리일환동지, 조용원동지, 김여정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사적관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운동강화



의 사진문헌들과 전시된 사적자료를, 사적물들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혁명의 만년재보, 국보중의 국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찌기 청년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청년증시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시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증시사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의 불꽃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게 하여주시였으며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이시기 위하여 청년운동사적관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그 영예로운 전투임무를 속도전청년돌격대에 맡겨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속도전

청년돌격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창공의 첫삼을 박은 때로부터 청춘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짧은 기간에 청년운동사적관을 우리 당의 청년증시사상이 집대성된 사상교양거점으로 일떠세우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꾼들과 함께 총서출에 정중히 모신 청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에 참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소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휘황찬란한 미래에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래앙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청소년들속에 함께

계시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립상을 색조각상으로 모신것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수령과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정말 잘 형상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은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였다고 하시면서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총서출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을

우러르면 혁명과 건설을 평도하시는 전기간 청년사업을 증시하시고 청년들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 오신 수령님들의 위대성을 가슴뜨겁게 절감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시고 청년문제를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차대한 전략적인 문제로,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청년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이 있었기에 우리 당은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업두조차 못내는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수 있었으며 세상에 유일무이한 청년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획하시고 빛내여오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즐기치게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숭고한 미래판, 후대판을 지니고 청년증시사상을 변함없는 전략적인 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들의 립상을 우러르면 혁명과 건설을 평도하시는 전기간 청년사업을 증시하시고 청년들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 오신 수령님들의 위대성을 가슴뜨겁게 절감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청년운동사적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번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운동사적관에는 김일성-김정일청년운동사가 집대성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사적관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자면 강사들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사적관관리운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운동사적관을 돌아보니 우리 청년동맹이 오늘과 같이 불패의 위력을 떨치는 영웅적인 청년조직으로,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자라날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고 거듭 되뇌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운동사적관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운동령도사와 청년운동강화발전에 살아올리신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 당을 따라 충정의 한길만을 걸어온 우리 청년들의 투쟁력사를 잘 보여줄수 있게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당이 준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한 청년운동사적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준공과 관련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일떠선 청년운동사적관은 청년들을 기적적인 승리와 위훈만을 아로새기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시대의 영웅, 창조적 거인들로 더욱 억세게 키워주시며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갈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절세위인들을 높이 우러러모시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절세위인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송도원하복공장 지배인 조철주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많게 모시며 절세위인들의 업적을 전하는 만대만대계의 글밭을 금강산의 천연바위에 새기는 사업에 충정을 바치였다. 평안남도인민보안국 산하단위 로동자 현영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데 필요한 많은 자재들을 가장애 돌려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할 평양상점 로동자 김숙영은 조국에 방전정사적지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진문헌들과 영상작품들을 정중히 모시며 혁명사적물들을 원상보존하기 위한 사업에 성의를 다하였다. 고건원관방 로동자합숙 책임자 리명화는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지난 기간 60여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키워 인민군대에 내보내고 사회에 진출시켰으며 제대군인들의 생활도 천혈옥의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다. 원산약초관리소 로동자 김순옥은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선 인민군군인들을 적극 원호하고 영예군인들을 따듯이 보살펴주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였다. 덕천시 장상동 46인민반 리명화, 사리원시 구룡리 35인민반 김여금도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사랑을 받들어 대외경제성국장 최연, 최장 장현철, 부원 박철민, 문서원 김도정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개건공사장에 많은 자재와 후방물자를 보내주었다. 평양시 출판물관리국 산하단위 실장 김명호도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 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하였다.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을 받들고 조선국제태권도련행사 안내통역원 명일심은 매일같이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 달려 나가 구슬땀을 바치면서 물심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흑색광업관리국 산하단위 부원 리건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문서원 리영금도 로동당시대의 선경거리를 함께 일떠세우는 심정으로 전투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였으며 지원사업에서도 모범을 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산천출원인들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집단을 위한 일에 더욱 헌신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선군총대의 고향과 더불어 영원할 자강력의 리성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평천혁명사적지 련일 참관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를 맞이한 격동적인 시기에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우리 나라 군수공업의 력사가 시작된 평천혁명사적지를 끊임없이 찾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국방공업의 력사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력사입니다.》 평천혁명사적지는 해방된 조국땅에 첫 병기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자립적국방공업의 초행길을 진두에서 이끌어 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뜻깊은 곳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2월 선군혁명의 만년제보로 훌륭히 개건된 평천혁명사적지를 찾으면서 우리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올리신 력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평천혁명사적지

는 선군총대의 고향이나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자욱을 따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는 자력자강의 무기, 무성함 총대술이 시작된 평천혁명사적지에 대한 참관의 길을 이어나가고있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를 우러러며 자위로 굳건하고 자강으로 위력 떨치는 부강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한생이 어려와 끓어오르는 격정을 감지 못하고있다. 지난날 화승대 하나 변변히 만들지 못해 침략자들에게 무참히 짓밟히던 우리 나라가 자체로 현대적인 무기를 생산하게 되었음을 장엄하게 선언한 력사의 총성이 지금도 들려오는듯한 기관단총사격장. 주체적인 병기공업의 창설에 아로새겨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선군혁명명도사를 길이 전하는 현지지도표지기를 비롯하

여 사적지의 여러곳을 참관자들은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고 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사용하신 기관단총과 사격타알에서 오래도록 발견음을 옮기지 못하고있다. 호름시조립대를 비롯한 당시의 기계와 도구, 무기부속품들이 원상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기관단총성능시험장에서 그들은 새 조국건설의 나날 빈바우에서 단 20일만에 첫 기관단총시제품을 만들어낸 병기공업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의 전인불발의 의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 첫 병기공장의 터전을 잡아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형상한 영상작품과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자체의 병기공업을 창설하여야 한다》를 비롯한 혁명사적관에 모셔져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진문헌, 영상작품들과 사적자료들은 백두밀림의 연길폭판과 평천리의 기관단총으로 시작된 주체적국방공업의 발전력사에 대하여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상원의 영웅적로동계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기 위한 사회주의 대건설전투에서 우리의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대고조전군의 승전포성을 기세차게 울려가고있다.

당의 사상과 위업에 충직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우리 나라 세멘트공업의 상징인 대건설공업기지의 위력을 파시하며 뜻깊은 지난해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전례없는 대기업을 일으켰다.

최고생산년도보다 수만의 세멘트를 생산하여 조국해방 일흔돌과 당창건 일흔돌을 빛나게 장식하고 건설의 대연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한 이 자랑스런 성과는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 드락과 이어놓고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해가는 상원로동계급의 불타는 애국충정의 분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사상도 승경도 발흥도 같이하며 당의 대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명의로 최상의 믿음어린 축하전문을 보내주시는 은정을 베푸시었다.

끝지의 세멘트생산기지에서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는 대기약적혁신은 주체조선의 첫 수조산시험이 완전성공한 민족사적 대사건으로 들끓고있는 새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추동하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 로동계급이 있는 한 원수들의 그 어둠 고립압박행동

절대로 통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승리와 영광의 천리길, 만리길만이 펼쳐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더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뜻으로 떨쳐 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매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우리 당이 펼친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은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주체 104(2015)년의 세멘트중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명예지배인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영광을 안고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역사적전환기를 세멘트생산 대고조로 빛내어 가려는 하나의 의지가 온 기업소에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2년 3월 어버이장군님의 유훈대로 세멘트중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갈 결의를 표명한 상원로동계급의 편지를 받아보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는 우리 당의 위대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전초병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언제나 동지들을 굳게 믿는다고 사랑과 믿음을 담아 보내 주신 친필서한은 그들이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의 전열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해나가도록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큰 몫을 담당하여온 기업소의 영예를 계속 높이 펼쳐나가도록 걸음걸음을 따듯히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고 당위전회의 집체적지도됨에 기업소조업이래 최고의 전투목표가 세워지고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이 펼쳐졌다.

정초부터 참신하고 박력있는 화산식산전선동공세가 전투현장들을 들끓다놓으며 로동자, 기술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 해주었다.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대건설전투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보장할 각오로 이곳 로동계급은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을 일으켜나갔다.

전력사정이 긴장한 속에서도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적극 탐구도입되어 새로 개건한 1호소성로제련과 광석생산기지들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과 단위들에서 새해 첫 전투부터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

기업소에서는 당에 대한 불타는 총진과 애국의 의지로 생산한 1,000여에 달하는 새해의 첫 세멘트를 용장화하여 보내오는 미대과학자지리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장건설장들에 보내주었다.

과감한 생산돌격전으로 1월생산계획이 빛나게 완수되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이 새차게 일어나 1.4분기계획이 기한전에 수행되었다.

전후 천리대고조시기 로동계급의 투쟁전열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상원로동계급의 영웅적이고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

여 상반기계획도 6월달까지 103.2%로 초과완수되는 눈부신 성과가 계속 기록되었다.

백두대지에 영웅청년선화를 수놓으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당에서 정해진 시간내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청춘대기범비로 일떠서게 된다는 백두청춘들과 한전호에 서있다는 자각을 안고 생산성과 끊임없이 확대하여 지난해 8월 12일까지 필요한 세멘트전량을 생산보장한 상원로동계급의 로력적위훈이 크게 깃들여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인민은 필승불패라는 철리를 뼈에 새긴 상원의 로동계급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차게 전개해나갔다.

기업소의 기술자들은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을 가로막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적대시책들을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짓밟아버릴 투철한 신념과 배짱으로 신진과학기술을 생산에 적극 연구도입하는 투쟁의 앞장에 섰다.

일군들은 생산장성의 열쇠가 과학기술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기술자들의 연구사업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것과 함께 과학기술보급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어놓음으로써 모든 종업원들이 현대과학기술의 요소를 점령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도록 추동하였다.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하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투쟁속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새차게 일어나 수많은 기술혁신안들과 창의

고안들이 연구도입되었다.

적합한 원료선택과 배합비선정, 립도 조성 등 수많은 기술적문제들이 앞을 막아나서는 속에서도 100%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는 고질세멘트생산기술을 확립한것은 세멘트공업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획기적사건으로 되었다.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지혜와 노력으로 원료, 크랭크분해기술의 대형감속기들에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제도가 설치되고 새로운 첨가제가 도입되어 석탄연소율이 종전보다 10%이상 높아졌다.

쏟아졌던 비리던 점판암에 의한 저열세멘트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증산예비를 마련하고 삼평강산 제2파쇄장전설과 일출분광선의 벨트콘베어에 의한 철광석반입공정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 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였다.

뜨거운 열을 내뿜는 소성로의 인입실에도 시술없이 뛰어들어 로의 정상가동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벼를 깔고 피를 바쳐서라도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더 높은 세멘트생산성으로 받아들이기려는 상원로동계급의 결사관철의 정신은 마침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현대과학기술의 위력에 의거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며 과학기술전당과 청원강제단식발전소를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에 방대한 량의 세멘트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였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한의 세멘트라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의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위대한 조국번영의 시대를 열어놓는데 크게 이바지한것은 부강조국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이다.

상원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수령의 사상과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해나갈 때 쫓지 못할 난관을 없으며 우리 공화국의 노동과 같은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최후발악을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머리에 철추를 내리고 최후승리의 피성을 울릴 그날은 앞당겨지고야만하리라는 철리를 실현으로 증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보내주신 축하전문에는 양양된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뜻깊은 올해에도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혁명을 보위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스런 로력적선물을 마련함으로써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분을 다시 한번 남김없이 떨치리라는 최상의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떠맡는 역센 기동, 사회주의문명국의 단년미래를 담보하는 주추들이 될 신념의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며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창조의 불길을 새차게 지펴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후대들을 위해 남긴 자국은 지워지지 않는다

뜻깊이 올해에 새 세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모든 학교와 대학들의 면모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치하여야 합니다.»**

온천권 원로소통자회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번듯한 건물은 아마 새로 일떠선 온천 직업공립대학 교사실제이다.

미래를 위한 설계도 2년전 가을 어느날 소금공업관리국 책임인공들의 방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질 줄 몰랐다.

온천직업공립대학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소금생산부문에 있어서는 안될 제정기에서 벗어나서 새 세기 제정기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고있는 사실만 보아도 나라의 화학공업과 인민

소금 공업 관리국 과 그 아래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 인들과 함께 온천직업공립대학으로 향하였다.

《우린 모두가 이 대학 졸업생들입니다. 모교에 대한 사랑이 추억으로 끝나서야 무슨 진정한 애국이라고 하였습니까. 오솔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빛내여갈 인재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날의 회의를 통해 모두의 마음속에 대한 면모를 일신시키는것이 한시도 미룰수 없는 우선적인 사업, 기어이 관철해야 할 당정책적과업으로 다시금 깊이 새겨졌다.

국장을 비롯한 관리국일군들의 출장일이 더욱 잦아졌으며 그들이 순례하고 강선 등우를 호호해나갔다. 즉시에 국장을 책임자로

하는 대학건설지휘부가 조직되었다. 여기에 당, 행정의 책임적인 일군들이 다 따라 되었다.

《우린 모두가 이 대학 졸업생들입니다. 모교에 대한 사랑이 추억으로 끝나서야 무슨 진정한 애국이라고 하였습니까. 오솔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빛내여갈 인재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건설에 필요한 자재의 양은 엄청난것이었다. 공사기간이 짧아져 예산된 주요자재량을 보아도 알 수 있었다.

국장을 비롯한 관리국일군들의 출장일이 더욱 잦아졌으며 그들이 순례하고 강선 등우를 호호해나갔다. 즉시에 국장을 책임자로

제정기제정기소에서 맡아나갔다. 설계도면이 완성된 날 일군들은 호뜻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우린 모두가 이 대학 졸업생들입니다. 모교에 대한 사랑이 추억으로 끝나서야 무슨 진정한 애국이라고 하였습니까. 오솔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빛내여갈 인재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건설에 필요한 자재의 양은 엄청난것이었다. 공사기간이 짧아져 예산된 주요자재량을 보아도 알 수 있었다.

국장을 비롯한 관리국일군들의 출장일이 더욱 잦아졌으며 그들이 순례하고 강선 등우를 호호해나갔다. 즉시에 국장을 책임자로

소금꽃은 어떻게 피는가 대학교사가 새로 일떠선것을 두고 교육자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을 기뻐하고있다.

《이제 노력을 들인다면 대학 건설은 그만큼 늦어지지 않고 조국의 전진도 머지않은 단계에 이르러서야 할 일이다.》

《우린 모두가 이 대학 졸업생들입니다. 모교에 대한 사랑이 추억으로 끝나서야 무슨 진정한 애국이라고 하였습니까. 오솔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빛내여갈 인재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리국일군들의 출장일이 더욱 잦아졌으며 그들이 순례하고 강선 등우를 호호해나갔다. 즉시에 국장을 책임자로

소금꽃은 어떻게 피는가 대학교사가 새로 일떠선것을 두고 교육자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을 기뻐하고있다.

《이제 노력을 들인다면 대학 건설은 그만큼 늦어지지 않고 조국의 전진도 머지않은 단계에 이르러서야 할 일이다.》

《우린 모두가 이 대학 졸업생들입니다. 모교에 대한 사랑이 추억으로 끝나서야 무슨 진정한 애국이라고 하였습니까. 오솔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빛내여갈 인재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리국일군들의 출장일이 더욱 잦아졌으며 그들이 순례하고 강선 등우를 호호해나갔다. 즉시에 국장을 책임자로

소금꽃은 어떻게 피는가 대학교사가 새로 일떠선것을 두고 교육자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을 기뻐하고있다.

《이제 노력을 들인다면 대학 건설은 그만큼 늦어지지 않고 조국의 전진도 머지않은 단계에 이르러서야 할 일이다.》

《우린 모두가 이 대학 졸업생들입니다. 모교에 대한 사랑이 추억으로 끝나서야 무슨 진정한 애국이라고 하였습니까. 오솔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빛내여갈 인재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리국일군들의 출장일이 더욱 잦아졌으며 그들이 순례하고 강선 등우를 호호해나갔다. 즉시에 국장을 책임자로

소금꽃은 어떻게 피는가 대학교사가 새로 일떠선것을 두고 교육자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을 기뻐하고있다.

《이제 노력을 들인다면 대학 건설은 그만큼 늦어지지 않고 조국의 전진도 머지않은 단계에 이르러서야 할 일이다.》

《우린 모두가 이 대학 졸업생들입니다. 모교에 대한 사랑이 추억으로 끝나서야 무슨 진정한 애국이라고 하였습니까. 오솔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빛내여갈 인재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리국일군들의 출장일이 더욱 잦아졌으며 그들이 순례하고 강선 등우를 호호해나갔다. 즉시에 국장을 책임자로

실력있는 학교로 소문난 비결

안악군 양산고급중학교에서 최연장간 안악군 양산고급중학교 학생들의 실력이 부쩍 올라가고 성공학교입학률이 높아져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원들이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중요한 것은 각종 다방면적인 지식과 훌륭한 교수방법을 소유하는것입니다.》

최근까지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에서 교직원들은 너무 오래된것으로서 자주 손질해오지 못하여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까지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에서 교직원들은 너무 오래된것으로서 자주 손질해오지 못하여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중요한 것은 각종 다방면적인 지식과 훌륭한 교수방법을 소유하는것입니다.》

최근까지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에서 교직원들은 너무 오래된것으로서 자주 손질해오지 못하여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까지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에서 교직원들은 너무 오래된것으로서 자주 손질해오지 못하여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중요한 것은 각종 다방면적인 지식과 훌륭한 교수방법을 소유하는것입니다.》

최근까지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에서 교직원들은 너무 오래된것으로서 자주 손질해오지 못하여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까지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에서 교직원들은 너무 오래된것으로서 자주 손질해오지 못하여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중요한 것은 각종 다방면적인 지식과 훌륭한 교수방법을 소유하는것입니다.》

최근까지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에서 교직원들은 너무 오래된것으로서 자주 손질해오지 못하여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까지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에서 교직원들은 너무 오래된것으로서 자주 손질해오지 못하여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중요한 것은 각종 다방면적인 지식과 훌륭한 교수방법을 소유하는것입니다.》

최근까지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에서 교직원들은 너무 오래된것으로서 자주 손질해오지 못하여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까지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에서 교직원들은 너무 오래된것으로서 자주 손질해오지 못하여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중요한 것은 각종 다방면적인 지식과 훌륭한 교수방법을 소유하는것입니다.》

최근까지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에서 교직원들은 너무 오래된것으로서 자주 손질해오지 못하여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까지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에서 교직원들은 너무 오래된것으로서 자주 손질해오지 못하여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중요한 것은 각종 다방면적인 지식과 훌륭한 교수방법을 소유하는것입니다.》

최근까지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에서 교직원들은 너무 오래된것으로서 자주 손질해오지 못하여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자강땅의 백살장수자가 받아안은 크나큰 은정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부름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하여서 백살장수자들이 늘어나고있다.

《독자의 편지》 나는 이 땅에 사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한 해동안에 받은 사랑과 은정, 뜨거운 열혈의 정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자 랑 합 니 다

지금도 사랑의 기념사진을 우리들 머리맡에 받아안은 은정을 두고두고 고마와 은 정인애를 눈물로 흘리려 합니다.

《독자의 편지》 나는 이 땅에 사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한 해동안에 받은 사랑과 은정, 뜨거운 열혈의 정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당 제7차대회에 드릴 자랑찬 로력적선물들!

총련군의 발전높이를 힘있게 뚫고나가는 우리 로동자들과 함께 동계급의 위훈의 자욱하고 혁신의 상징인것이다.

《독자의 편지》 나는 이 땅에 사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한 해동안에 받은 사랑과 은정, 뜨거운 열혈의 정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참관자들이 늘어나는 학교로 되기까지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에서 교직원들은 너무 오래된것으로서 자주 손질해오지 못하여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독자의 편지》 나는 이 땅에 사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한 해동안에 받은 사랑과 은정, 뜨거운 열혈의 정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참관자들이 늘어나는 학교로 되기까지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에서 교직원들은 너무 오래된것으로서 자주 손질해오지 못하여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독자의 편지》 나는 이 땅에 사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한 해동안에 받은 사랑과 은정, 뜨거운 열혈의 정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참관자들이 늘어나는 학교로 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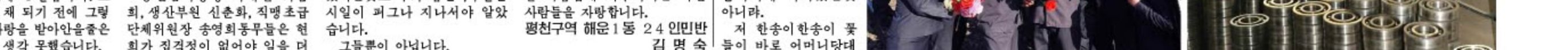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에서 교직원들은 너무 오래된것으로서 자주 손질해오지 못하여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독자의 편지》 나는 이 땅에 사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한 해동안에 받은 사랑과 은정, 뜨거운 열혈의 정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참관자들이 늘어나는 학교로 되기까지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에서 교직원들은 너무 오래된것으로서 자주 손질해오지 못하여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독자의 편지》 나는 이 땅에 사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한 해동안에 받은 사랑과 은정, 뜨거운 열혈의 정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에서 교직원들은 너무 오래된것으로서 자주 손질해오지 못하여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